

고성군평생학습관 상반기 수강생 모집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 기회, 25일까지 145명 접수 ... 종이공예 · 부동산 경매상담사 등

고성군 평생학습관은 군민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1년 상반기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한다.

3월 8일부터 4개월 과정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어린이 50명, 성인 95명 총 145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어린이 교육과목으로 신나는 레고교실, 수학미술, 클레이아트, 클레이사이언스, 종이공예 등 5과목을 모집한다.

성인 교육과목으로 부동산경매

상담사과정,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예쁜글씨POP, 골프교실, 도자기 핸드페인팅, 시조한시, 와이어공예, 평생교육강좌 등 8과목이 운영된다.

교육신청은 만 18세이상 성인 남녀와 관내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 관내 6세~7세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접수장소는 고성평생학습관이다.

수강료는 신청과목에 따라 2만~4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다.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성군 주민과 혼인한 외국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은 50% 감면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평생교육강좌를 통해 개인의 특기나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문의 6680-3772〉

최광호 기자

고성군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21~28일까지 접수 ... 한식조리사 등 13개 과목

고성군 여성회관은 21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2011년도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한식조리사, 다이어트댄스, 컴퓨터활용 2급 자격증, 장애인요가 등 모두 13개 과목이며, 총 모집인원은 200명이다.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70% 미만이면 폐강 된다.

교육기간은 3월7일부터 7월1일

까지 4개월 과정이며,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주민이다.

수강료는 4개월 일시납부로 4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무료다. 또 장애우 및 결혼이민자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기초교육도 무료다.

수강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놀이방도 운영한다. 〈문의 : 680-3663〉

최광호 기자

2011년도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고성문화원 21~28일 접수... 사물놀이 등 10개 과목

고성문화원은 21일부터 28일까지 2011년도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8월 한달은 휴강한다. 모집기간 외에도 연중 수시로 수강신청을 받는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연간 5만원이다. 3월달 등록 때 3만원, 9월달 등록 때 2만원을 내면 된다.

교육내용은 △사물놀이 △장애인 사물놀이 △한국화 △유화반(초급) △유화반(중급) △한문서예반 △한

글서예반 △사군자반 △노래교실반 △전통 민요반이다.

한편 고성문화원은 28일 오전 10시30분 1층 영상음악실에서 임원 등 1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문의 : 681-2922〉 최광호 기자

기사제보 · 독자투고

전화 : 681-1666~7 팩스 : 681-1668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고성팔경(高城八景) ①청간정(淸澗亭)

달 뜬 밤 정자에서 바라보는 경치 천하제일



김 광 섭
향토사학자

고성군 토성면 89-2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청간정은 간성(杆城)읍내에서 남쪽으로 7번 국도를 따라 17km쯤 내려가면 도로 변에 위치해 있는데, 신선봉에서 흘러 내리는 청간천과 천진천이 합류하는 합수머리인 기암절벽 위 울창한 송림 사이에 건립되어 있다.

관동 팔경의 하나인 정자는 만경창파가 넘실거리는 파도와 바위가 격돌하여 바닷물이 튀어 오르고 갈매기가 물을 차며 날아오르는 순간의 일출은 가히 천하제일경이며, 달 뜬 저녁과 밤이면 정자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안에 있는 듯 착각을 일으킨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와 시인묵객들의 심금을 울린 곳으로 명승지로써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2호로 1971년 12월 16일 지정된 바 있다. 정자의 창건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존하는 문헌을 고증해 보면, 본래는 청간역(淸澗驛)의 정자로 만경대(萬景臺)의 남쪽 2리 물가에 옮겨 짓고는 청간정(淸澗亭)이라 하였다고 한다.

중수에 관한 기록은 1560년(명종 15)에 간성 군수 최천이 처음 수리하였고, 1662년(현종 3) 군수 정양(鄭養)이 재차 보수한 뒤 옆에 작은 누각을 세우면서 좀더 화려하게 치장했다. 1844년(헌종 10)에 군수 정재용(鄭在容)이 또 수리하고 보수하였다. 1863년(철종 14) 군수 이원영(李源永)이 다시 수리하였으며 그간에 많은 세월이 흘러 비바람에 닳고 썩은 데다 불에 타기까지 하여 10여개의 돌기둥만 우뚝 서 있을 뿐이어서 수백 년간 보는 이로 하여금 탄식을 자아내자 1928년(戊辰年) 봄에 토성면장 김용집(金溶集)의 발기로 현재의 위치에 옮겨 중수하게 되었다.

그 이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것을 1953년 5월 15일 초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분부로 보수하였으며 정자의 현판도 이대통령의 친필로 계관 되어 현재

에 전하고 있다. 약 23년 지난 후 해풍과 비바람으로 퇴색되고 시설물이 훼손되자 1980년 8월 1일 최규하(崔圭夏)대통령의 동해안 순시 때 지시에 따라 동년(同年) 10월 1일에 착공하여 다음해 4월 22일 완전 해체 보수하면서 휴게소,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되었다.

1997년 4월 12일 토성면 성대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을 타고 청간정 일대를 태우고 정자 난간 일부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1997년 7월 사업비 들여 보수 정비했다.

현재의 건축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건물이며 초석은 팔각기둥으로 전·후면의 8개는 그 높이가 2.1m나 되며 마루귀틀을 받치는 1층 기둥으로 삼았다. 중앙부는 높이 1.2m 정도의 초석 위에 팔각형의 짧은 기둥을 세워 전·후면의 초석과 함께 아래층의 구조체를 형성하고 있다.

2010년 5월 고성군에서는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청간정이 향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서 청간정 종합정비(명승지정 및 정비)에 대한 계획수립 학술용역 보고서에 발표된 바 있다. 필자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보 1호 송례문을 보더라도 문화재는 올바르게 보존하고, 아름답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